

광주국세청, 전통주 판로 개척... '호남 K-술' 전시장 운영



광주국세청은 지난 1일 광주·전남·전북 주류도매협회와 지역 전통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사 1층에 '호남의 K-SUUL' 홍보 전시장을 마련했다.

청사 로비서 'K-SUUL AWARD' 출품작 등 홍보

주류도매협회와 업무협약...경영으로 세정지원도

광주지방국세청이 호남지역 전통주 홍보에 적극 나섰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1일 광주·전남·전북 주류도매협회와 지역 전통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사 1층에 '호남의 K-SUUL' 홍보 전시장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술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9월 개최 예정인 'K-SUUL AWARD'에 호남지역 우수 주류제품이 더 많이 출품돼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K-SUUL AWARD는 지난해 국세청이 첫 주관한 주류 제품 시상식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돕기 위해 열린다.

전시회에는 'K-SUUL AWARD' 출품작 36종과

세무서장들이 추천한 지역특산주 등 30종이 선보인다. 탁·약·청주류 26종, 과실·맥주류 13종, 소주류 12종, 기타 주류 15종 등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K-SUUL AWARD에서 수상한 '한영석의발효연구소' 한영석 대표를 비롯해 제조업체 대표 4명과 종합주류도매협회 윤연준 전남협회장, 김국호 광주협회장, 정용철 전북협회장, 하이트진로 장인섭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가 보다 널리 알려져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우수 주류를 지속 발굴하고 주류 제조·유통업계와 소통 확대에 힘쓰는 한편 경영 예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 전국 대표 정원 자원 집적지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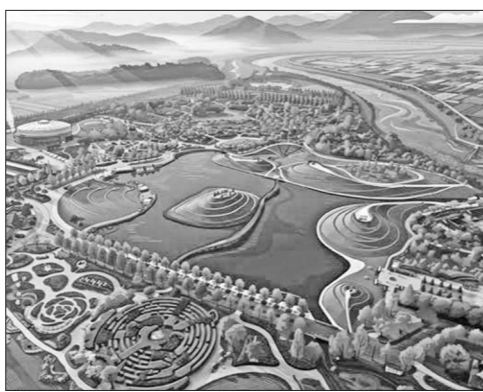
국내 1호 국가정원 보유...지방·민간정원, 두번째로 많아 지방정원 총면적 전국 최대...관광·체류 소비 확대 기대

전남이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을 아우르는 '정원 자원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1호 국가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민간정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등 양과 질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연구원은 2일 식목일을 앞두고 JINI 인포그래픽 '전남은, 정원 모집 중-'을 발간하고 전국 정원 현황과 전남의 경쟁력을 분석했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 유형별 구조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전남은 정원 자원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원은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국가정원은 총면적 30만㎡ 이상, 3년 이상 운영, 평가 기준 충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지정된다.

국내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정원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뒤 2015년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으며, 2023년 박람회 당시 1022만명이 방문하면서 관광·소비



국내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시 생성이미지.

유발 효과를 입증했다. 지방정원 역시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지방정원은 전북 3개에 이어 전남이 부산·경기와 함께 2개를 보유하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전남은 담양 죽녹원, 구례 지리산정원 등을 중심으로 정원 자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기반을 다져왔다.

민간정원은 전남의 강점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다. 2025년 기준 경남(40개)에 이어 31개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총면적은 76.7ha로 전국 최대 규모다. 고품격 보성이 각

각 5개로 가장 많고, 화순이 4개로 뒤를 잇는 등 지역별 분포도 고르게 형성돼 체류형 관광과 연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원산업 기반도 점차 갖춰지고 있다. 담양에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은 정원 교육과 문화 확산, 산업화를 연계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연간 정원교육 2만500명, 문화 참여 22만700명 확대를 목표로 관련 산업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남연구원은 순천만국가정원 사례에서 확인된 관광·문화·환경 결합 효과를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단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 주민 참여, 콘텐츠 운영까지 포함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희 연구원은 "정원은 관광 자원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 자산"이라며 "국가정원과 민간정원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삶의 질 향상까지 연결되는 녹색 인프라로서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I 인포그래픽은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연구원 홈페이지(www.jini.re.kr)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4월 전통주에 '광양매실막걸리' 선정

매실 향 살린 프리미엄 막걸리...지역 농산물 산업화 속도

전남도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광양매실을 원료로 한 프리미엄 막걸리를 '이달의 전통주'로 선정하며남도 술 산업 육성 흐름에 힘을 실어 준다.

전남도는 4월 '이달의 전통주'로 광양(썬백운주)의 탁주 '광양매실막걸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품은 2025년 남도 우리술 품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광양매실막걸리는 이러한 기능적 특성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용성을 갖춰 전통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생산체인 백운주가는 매실과 복분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를 꾸준히 개발해온 전문 양조장이다. 광양 백운산 일대의 맑은 물을 기반으로 한 양조 환경과 원료 경쟁력을 결합해 차별화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이달의 전통주' 선정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우수 전통주 발굴과 산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봄 관광수요 선점 나서...숙박세일페스타 참여

2만2000장 할인쿠폰 배포

전남도가 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전국 단위 할인 행사에 참여해 대규모 숙박 수요 유입에 나선다. 숙박비 부담을 낮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숙박업계 매출 확대까지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숙박세일페스타 봄편'에 참여해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숙박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숙박 할인 지원사업으로, 전남도는 총 2만2000장

의 할인쿠폰을 확보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이 가운데 봄편에서는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쿠폰이 배포된다.

할인 혜택은 숙박요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박 기준 7만원 이상 예약 시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이 할인되며, 2박 이상 숙박할 경우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여기어때, NOL 등 7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1인 1매만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봄편에 이어 9~10월 '가을편 숙박세일페스타'를 추가로 추진해 약 1만8000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관광 수요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LH·건보공단, 임대차계약 정보 연계 임대주택 입주자 건보료 부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료는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 정보(보증금, 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되므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고,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정이 이뤄진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정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번거로움 등 이유로 신청을 놓기도 해 시세 기준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되는 일이 잦았다.

LH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니라 임대주택 계약 정보가 반영된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공단과 협업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LH는 이달부터 매일 약 88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단으로 전송하고, 공단은 이를 반영해 건보료를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LH와 건보공단은 이날 LH 서울 지역본부에서 '임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습뉴스



남광주농협은 최근 농협 회의실에서 '2026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남광주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4400만원 전달

누적 수혜자 1746명...지역사회 인재육성 앞장

남광주농협은 최근 농협 회의실에서 '2026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영종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조합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합원 대학생 자녀 44명에게 총 44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남광주농협은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

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누적 수혜자는 1746명에 달한다.

이영종 조합장은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해 지역과 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어촌공사, 데이터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개발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에 나선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구축한 '유해·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이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소규모 현장이 많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 업체 역시 영세한 경우가 많아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돼 왔다.

이에 공사는 기존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해 공사 종류별 위험요인과 저감 대책을 체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협력업체가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 고도화는 규모와 정밀도 모두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축적된 산업재해 및 국내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해 기존 1만8000여개 수준이던 위험요인 감소 대책을 6만2000여개로 세분화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